

온두라스 대통령, 트럼프에 반기...“이민자 쫓아내면 미군 추방”

미국내 불법체류 온두라스인 50만명...본국 외화 경제 25% 본국송환에 '맞추방' 정면 반발...중남미 자국민 보호책 마련 중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온두라스 대통령이 '미군 맞추방'을 거론하며 반기를 꺼내들었다.

4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실행한다면, 자국 내 미군 주둔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우리 형제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이라는 적대적 태도에 직면한다면 미국과의 협력 정책, 특히 군사 분야에서 변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수십년간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유지해온 미군 기지는 이런 상황에서 온두라스에 존재할 이유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도 온두라스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0년대 온두라스 정부 승인 아래 소토 카노 공군기지를 건설, 중미에서 가장 큰 미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군과 민간인력 약 1천명이 주둔하고 있다.

본래 이 지역 공산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마약 단속과 인도적 지원 등의 임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가기 위해 사막길을 걷는 이민자들. /AFP=연합뉴스

를 맡고 있다.

카스트로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공언한 이후, 중남미 지도자 중에선 처음으로 직접 반

발한 사례다. 이와 관련 중남미 외교부장관들은 이날 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남미 정부들은 미국으로 간 이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온두라스인은 약 50만명으로 추정된다. 온두라스 인구의 5% 수준이다.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화는 온두라스 경제의 25%를 차지한다.

NYT는 카스트로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온두라스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온두라스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인도적 지원국이다.

이와 관련 월프리먼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그 과감함에 다소 놀랐다"며 특히 카스트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이런 경고를 보냈다는 것 역시 놀랐다고 말했다.

프리먼 연구원은 카스트로 대통령이 최근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미 대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려 노력해왔

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카스트로 정부의 온두라스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권위주의 체제의 베네수엘라라는 대량 이주 사태를 겪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은 카스트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라틴아메리카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중남미 여러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트럼프에 돈바치는 베이조스” 워싱턴포스트 만평 삭제 논란

플리처상 수상 만평 작가 “부당하게 삭제” 반발...사의 표명

미국을 대표하는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P)에서 시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트럼프 비위 맞추기'를 풍자하는 만평 게재가 거부당하자 작가가 사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WP의 만평 작가인 앤 텔네이스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베이조스 등을 풍자하는 만평이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텔네이스에 따르면 해당 만평에는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돈다발이 담긴 가방을 바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에 각각 100만달러(약 14억7천만원)를 기부한 것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디즈니사가 소유한 ABC 방송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합의금 1천500만달러(약 215억원)를 지급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종결한 것을 비꼬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가 앞다녀 있는 장면도 그려 넣었다.

텔네이스는 “이 만평은 억만장자인 IT, 미디어 거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의 펜이 어떤 대상을 겨냥했는지에 따라 만평이 ‘킬’ 당한 적은 지금껏 없었다”며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WP 측은 텔네이스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같은 내용의 칼럼이 실린 데다 다른 비슷한 칼럼도 예정돼 있어 중복을 피하려는 차원에서 만평을 게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WP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베이조스의 입김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WP는 1976년 이후 1988년 대선을 제외하고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 왔으나,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이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사설 초안을 작성했으나 베이조스의 반대로 발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5일 일본 도쿄 도요시시장에서 열린 올해 첫 경매에서 19억4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참치.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도쿄 올해 첫 참치 경매 최고가 19억4천만원

일본 도쿄 수산물 도매시장인 도요시시에서 5일 진행된 올해 첫 참치 경매에서 278kg짜리 아오모리현 오마(大間)산 참다랑어가 2억7000만엔(약 19억4천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식업체와 수산물 중간 도매업체가 함께 최고가 참치를 낙찰받았다. 두 업

체는 5년 연속으로 연초 최고가 참치를 구매했다. 이번 낙찰가는 관련 경매 기록이 남아 있는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지난해 첫 참치 경매 최고가 1억1천424만엔(약 10억7천만원)의 두 배 정도 된다.

역대 최고가는 2019년에 기록한 3억3천300만엔(약 31억2천만원)이다.

이날 최고가 참치를 구매한 업체 사장은 “참치는 행운을 기원하는 물품”이라며 “음식으로 모든 사람을 웃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마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예상을 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좋은 출발이 어부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산타 총격범 함께 셀카 찍은 후 가게 주인에 '탕탕'

러시아에서 정교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변장한 남성이 가게 주인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이즈베스티야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러시아 추바시야공화국 카나시 마을에서 한 남성이 러시아산 산타인 '데드 모로스'(추위 할아버지) 차림으로 가정용품 매장 주인을 총기로 살해했다.

풍성한 흰 수염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붉은 산타복을 입고 매장을 돌아다니던 그는 주인을 셀카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산타복에 숨겨둔 총을 꺼내 주인을 여러 차례 쏘고 후도망갔다. 주인은 사망했다.

총격범은 이튿날 자택에서 체포됐다. 추바시야공화국 수사위원회는 숨진 가게 주인이 이 남성에게 갚지 않은 빚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교회를 믿는 러시아는 크리스마스를 율리우스력에 따라 매년 1월7일에 기념하기 때문에 연초까지 성탄 분위기가 이어진다. /연합뉴스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